

# “가족에게 추천하는 알토대 MBA, 그보다 확실한 검증이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부, 형제, 남매가 함께 다니는 대학이 있다. 바로 알토대(전 헬싱키경제대) 복수학위 MBA 프로그램이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글로벌 과정을 개설한 알토대 복수학위 MBA는 교육강국 핀란드 명문 알토대 MBA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원(aSSIST) 경영전문대학원 MBA를 함께 취득하는 정규 석사 과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졸업생 4449명을 배출했고 글로벌 동문은 1만8000명에 이른다.

알토대는 2010년 핀란드 정부 주도하에 헬싱키를 대표하는 3개 주요 대학(헬싱키 경제대, 헬싱키 공과대, 헬싱키 예술디자인대)을 통합해 혁신과 창조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출범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및 로이터는 세계에서 혁신적인 대학 중 한 곳으로 알토대를 꼽으며 ‘젊음’, ‘혁신적 기술’, ‘학문 간 융합’, ‘스타트업’, ‘디자인’, ‘기업가 정신’ 등의 단어로 알토대의 강점을 설명했다.

## 가족에게 추천하는 검증된 과정

본 과정을 졸업한 아내의 추천으로 입학한 오성택 동문(2017학번 알토 23기)은 “아내가 적극 추천했다. 알토대 MBA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았다고 했다”며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배움을 강점으로 꼽았다. 아버지와 누나에 이어 입학한 박금호 동문(2020학번 알토 26기)은 “과정에 대해 별도로 찾아보고, 입학설명회도 참석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 주말수업 1년 6개월, 한국어반-영어반 중 선택

수업은 한국어반과 영어반 중 선택할 수 있다. 강남캠퍼스와 강북캠퍼스가 동시에 개설돼 학습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에서 가장 짧은 학위취득 기간인 1년 6개월(3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하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 주말에만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수업은 2~3주 동안 1개의 교과목을 집중 공부하는 모듈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 전국에서 입학,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동시 진행

포스트 코로나에도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zoo)과 오프라인(강의실)에서 실시간 동시 수업이 진행돼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다. 수업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고, 출장 및 업무 등 급작스러운 일정 변동에도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최

근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대부분의 대학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알토대 MBA는 재학생의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교 관계자는 “올해 3월 신입생 중에는 부산이나 울산, 김천 등의 지역에서 입학해 공부 중인 학생들이 있다”며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훨씬 많지만, 사정이 있을 경우 유연하게 학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단일 MBA로는 국내 최대 규모 동문 네트워크

1995년부터 진행된 알토대 MBA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LG 권봉석 대표이사 부회장,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 사노파-아벤티스 배경은 대표 등을 비롯해 많은 동문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국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aSSIST 경영전문대학원은 2023년 가을학기(9월) 알토대 MBA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국내 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3년의 업무 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직장 경력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자비로 공부하는 직장인이 많아진 만큼 전형별 입학장학금이 마련돼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택이죠”



## -가족 추천으로 입학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

“가족동문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동문장학금을 받은 만큼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등 동기 부여가 됐다.”(유세나)

## -배운 내용 중 실무에 가장 도움된 부분은 무엇인가.

“개발, 생산, 마케팅, 재무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회사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경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은 선택이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더 붙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작은 선택 하나도 쉽게 넘기지 않고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전략적 사고를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됐다.”(유세나)

##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핀란드 본교에서의 현지 수업이다. 몇 명의 동기와 아파트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만큼은 회사도 가정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늦은 나이에 만끽하는 학업의 즐거움, 주변국을 여행할 수 있었던 기회는 이후 다시 갖기 어려운 행복한 시간이었다.”(김애란)

## -입학 전과 비교해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동문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삶이 풍요로워졌다. 총동창회의 여러 모임을 통해서 졸업 후 지금까지 꾸준히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성공적인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MBA 네트워크가 힘의 원천이 됐다.”(김애란)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며 시야를 넓혀가는 점도 좋았지만, 동기들과 팀 스티디를 통해, 현업에서도 팀워크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유세나)

##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몇 달 후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해 보고자 준비 중이다. 이제 창업 단계라 조언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후배들은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 싶다. 본인의 커리어를 잘 정리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들어보시면 좋겠다.”(김애란)

## -알토대 진학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회사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주말에 수업을 받고, 주중에도 과제 준비로 바빴다. 그런데 돌아쳐 보면 1년 6개월은 인생에서 정말 찰나의 시간이다. 그 찰나의 투자로 확실히 성장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김애란)

“졸업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도 ‘얻은 것이 더 많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유세나)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직장병행-주말수업(1년 6개월, 3학기)**

한국 4,449명 직장인들이 선택한 유럽명문

**알토대(前헬싱키경제대) 복수학위 MBA**

Accredited by:

AACSB EQUIS AMBA

전세계 0.5%의 경영대학만이 획득

Aalto EMBA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경영대학만을 인증하는 'AACSB', 'AMBA', 'EQUIS'를 모두 획득한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으로, 본 인증은 전세계 0.5%의 경영대학만이 획득하였습니다.

Global Alumni 18,000

Among top 100

2022 Financial Times 2년 연속 Top 100

top 0.5% Globally

전세계 0.5%, 국내 유일 세계 경영대학 3곳만을 모두 획득 "Triple Crown" 달성

**Only 2days**

-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전일-주말수업
- 강남/강북 클래스 동시 개설
- 한국어반 / 영어반 중 택일

**국내최장**

현업병행

**국내유일**

국내최대

**최단기간**

**한국에서 29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NO.1 복수학위 MBA**

**Since 1995년**

- 29년간 한국에서 검증 받은 글로벌 Executive MBA

**100%**

- 교육생 전원 유럽 명문 핀란드 알토대 aSSIST University 양교 MBA 학위 모두 취득

**한국 4천여 동문**

- 국내 정규 단일 MBA 기준 최대 규모
- 동문소식 안내 및 동문모임 진행 중

**1년 6개월**

- 총 3학기(1년 6개월) 내 과정 진행
- 박사과정 진학에 가장 빠른 MBA

**2023학년도 가을학기(9월) 입학 - 신입생 모집 중!**

aSSIST University 과정문의 02-360-0721, 0730

알토대 검색

김애란-유세나 모녀는 알토대 동문이다. 1980년대 삼성SDI(옛 삼성전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애란 씨는 이후 발렉스코리아에서 귀중품 수출입 물류 업무를 13년간 담당했다. 2016년부터는 한국금거래소에서 회귀금속, 금 등 원자재 수출입을 하고 있다. 2011년 알토대 17기로 입학해 MBA 과정을 이수한 그는 정년을 앞두고 본인의 경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다. 유세나 씨는 삼성전자 LED 미주 영업팀에서 B2B 비즈니스 및 SCM 운영 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알토대 28기 과정에 입학해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 중이다. 이들 모녀로부터 알토대 MBA 과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 -MBA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경력 단절 후 사회생활을 재개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다. 해외 영업에 영어가 꼭 필요했다. 알토대 MBA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게다가 국내대학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핀란드 알토대(당시 헬싱키경제대) 학위를 복수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애란)  
“사회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뛰고 있는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배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다.”(유세나)

## -알토대 MBA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가.

“학업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니며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게 좋다.”(김애란)